

남아공 월드컵 사고 칠 준비됐다

허정무 감독 유쾌한 출사표

“우리 선수들 모두 사고를 칠 준비돼 있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유쾌하게 도전하겠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을 52일 앞둔 허정무(55)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허정무 감독은 20일 중국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치러진 ‘코카콜라 2010 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에 참석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똑같다”며 “하지만 단계가 있다. 16강 진출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감독은 이어 “진품 트로피를 가까이서 직접 보는 게 처음이다. 욕심 같아서는 한국에 그냥 가져오고 싶다”며 “우리 선수들은 모두 사고를 칠 준비돼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엔트리 구성에 대해선 “지금 마무리 단계다. 선수들의 최종 컨디션을 점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허 감독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불턴) 등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월드컵에서는 의외의 선수들이 스타로 발돋움한다. 우리 선수 모두를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또 “조별리그 B조 상대 모두 만만치 않은 팀이다. FIFA 랭킹도 우리보다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에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 현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선수들의 상태와 상대팀 분석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허 감독은 특히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유쾌한 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현역 시절 원정 월드컵을 치러봤지만 상대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 경기를 했다”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고 경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자신 있게 즐기는 축구를 하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하겠다. 선수들에게 당당하고 유쾌한 도전에 나서자고 말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이어 “최근 해외의 선수들이 조금 부진한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너무 잘해도 걱정된다”며 “선수들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 자칫 월드컵 본선에서 사이클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부상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하는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날 때 예비선수로 2-3명을 더 데려갈 계획”이라며 “갑자기 현지에서 부상 등 불상사가 생겼을 때 한국에서 급하게 선수를 불러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개막을 52일 앞둔 20일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치러진 ‘코카콜라 2010 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에 참석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똑같다”며 “하지만 단계가 있다. 16강 진출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헨 메시와 대결 반드시 승리”

허정무호 중원 맡은 광주상무 김 정 우

“이병 김정우 승리를 신고합니다.”

신입 불사조 광주 상무의 김정우가 빛을 발하며 광주에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병 김정우는 ‘허정무호’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광주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상무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김정우는 월드컵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느라 뒤늦게 상무에 합류했지만 지난 10일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트리며 몸풀기를 시작했다.

첫 골이 나오면서 부담감을 덜었다는 김정우는 “대표팀에서는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상무에서는 박병규 선수가 수비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격적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며 “성남 일화에서 뛰던 지난해 5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는 6골을 기록하고

싶다”고 밝혔다.

새로운 팀 상무가 아직 2승을 사냥하는데 그치며 9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어떤 팀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골결정력만 보완된다면 시즌 6강 플레이오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김정우는 “성적만으로 광주 상무를 약체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분위기도 좋고, 저력이 있는 팀이다. 하지만 관중이 적어 어렵기도 하다. 시민들의 응원을 받고 뛰면 더 힘이 날 것이다”며 상무의 쾌속 질주를 위한 광주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제대를 하면 31살이 된다. 유럽진출 생각이 없지만 일본 무대는 다시 가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광주 팀 선수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특히

메시와의 대결은 김정우에게도 가슴 설레는 대결이다.

김정우는 “평가전에는 많이 나섰지만 아직 월드컵 무대는 밟아보지 못했다. 평가전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인만큼 기대도 되고 준비를 잘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상대팀 선수인 메시가 몸 상태 등 모든면에서 좋기 때문에 메시를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지 무척 기대 된다”고 말했다.

최근 팀 내 자리잡기에 실패한 대표팀 동료 기성용(셀틱 FC)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우는 “툼메이트도 했고, 잘 아는 친한 동생이다.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고 몸이 망가지거나 하는 선수는 아니다”며 “운동도 알아서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무는 21일 오후 7시 울산 현대 미



포조선과의 2010 하나은행 FA컵 경기에서 이어 24일 성남 일화와의 K-리그 9라운드 경기를 안방에서 치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z@kwangju.co.kr

남아공 월드컵 트로피 공개

오늘 서울서 시민체험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축구대회 우승국에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가 20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공개됐다. FIFA 월드컵 트로피가 한국에서 공개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FIFA 월드컵 트로피는 지난해 9월 21일 스위스 FIFA 본부를 떠나 225일간 84개 나라를 돌며 축

구 팬들을 만난다.

지난 1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월드컵 트로피는 21일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날 언론 공개 행사에는 조종연 대한축구협회장, 허정무 대표팀 감독, 힐튼앤서니 데니스 주한 남아공 대사 등이 참석했다. 21일에는 용산 아이파크 물에서 4000명이 참여하는 진품 월드컵 트로피 시민 체험 행사를 마련해 시민이 진품 월드컵 트로피를 가까이서 보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국가대표 다비드 실바는 한국계

외할아버지가 한국인

스페인 축구국가대표 다비드 실바(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소속)가 한국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축구전문 언론인 스포탈코리아는 ‘마르카’의 15일자(현지시각) 보도를 인용하여 실바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며 실바는 한국계 3세라고 전했다.

‘마르카’는 실바에 대해 “실바의 눈이 동양인을 닮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한국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실바는 그 동안 동양인을 닮은 외모로 ‘엘 차노(el chino)’, 즉 중국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실바의 별명은 ‘엘 코레아노(el coreano)’, 한국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66년 한국과 스페인 연립 협정을 맺었고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어업을 벌였다. 이 때 한국인 선원 중 한 명이 실바의 외할아버지였다.

이후 실바의 외할아버지는 스페인에서 딸을 낳았고 이 딸이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다비드 실바인 것이다.

‘한국계 3세’로 밝혀진 실바는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발렌



시아의 주요 미드필더로 거듭나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였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그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선수이다. 뛰어난 패스와 돌파력, 창조적인 플레이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유벤투스 등의 빅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시즌 역시 맨유와 레알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발렌시아가 실바의 이적을 불허하면서 팀에 잔류한 바 있다.

현재 실바의 이적료로는 최소 4000만 유로(약 600여억원)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속 구단인 발렌시아는 재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바의 이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바가 한국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오는 6월 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한국과 스페인 대표팀간의 평가전의 재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제주 핑크스골프장에서 열리는 2010 유럽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연습라운드에서 앤서니 김이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앤서니 김 드라이버 연속 샷

제주그린서 ‘별들의 전쟁’

내일 발렌타인 챔피언십...양용은·앤서니 김 등 출전

2010년 미국과 유럽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세계정상급 골퍼들이 제주에 모인다. 22일부터 나흘간 제주 핑크스 골프장(파72·6146야드)에서 열리는 발렌타인 챔

피언십은 올해로 3회를 맞는 대회로 유럽프로골프투어와 한국프로골프투어가 공동 주관한다. 1,2회 대회 때도 유럽의 강호들과 한국의

기아차 'K7배 골프 챔피언십' 아마추어 대상 참가자 모집

기아자동차는 ‘K7배 아마추어 골퍼 챔피언십’을 개최하기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가 올해 처음 여는 ‘K7배 아마추어 골퍼 챔피언십’은 6월 서울·경기·인천 지역

에선(남양주 해비치CC)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의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6일 천안 우정힐스CC에서 결선이 열린다. 예선을 통과한 총 105명의 아마추어 골퍼가 결선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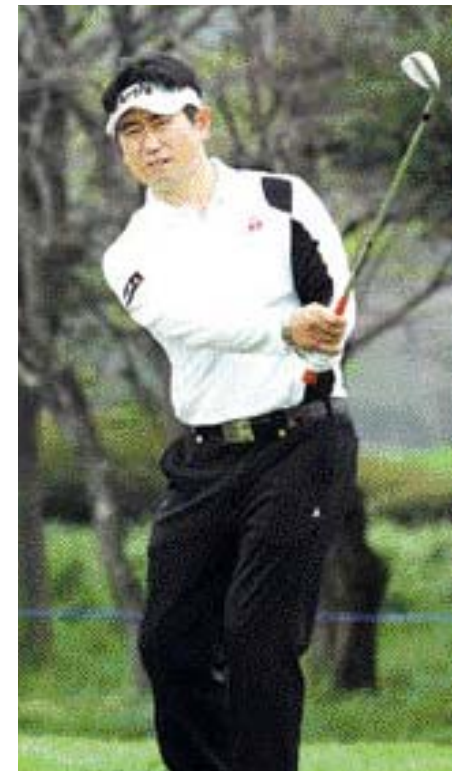
참가신청은 21일부터 기아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a.co.kr)와 대회 운영사무국(1566-5854)에서 받는다. /연합뉴스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했다. 그 때 출전했던 선수들이 더욱 화려해진 경력을 쌓아 제주를 찾는다.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제주 출신 양용은(38)이다.

2년만에 이 대회에 출전하는 양용은은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로 급부상했다. 양용은은 한동안 우승이 없었지만 귀국을 앞두고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유럽-원아시아투어 불보치이 나옴에서 정상에 오르며 이름값을 했다.

1회 대회가 열렸던 2008년 유망주 중에 하나였던 재미교포 앤서니 김은 이후 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리며 차세대 세계랭킹 1위 후보로 꼽혔다. /연합뉴스



양용은이 20일 연습라운드에서 어프로치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